

보도시점 2024. 3. 11.(월) 15:30 (2024. 3. 12.(화) 조간)

## “한 번에 쉽고 편리한 나만의 고용서비스를 받는다” 「고용24」가 시작됩니다!

- 고용노동부 장관, 한국고용정보원 찾아 「고용24」 시연회 및 디지털 고용서비스 혁신 간담회 가져 -

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 「고용24」를 통해 모든 국민이 컴퓨터(PC)는 물론 모바일을 통해서도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.

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.11.(월) 15:30 한국고용정보원(원장 김영중, 이하 ‘고용정보원’)을 찾아 고용정보원 임·직원, 고용서비스 전문가와 함께 「고용24」를 시연하고 「디지털 고용서비스 혁신 간담회」를 했다.

「고용24」는 그간 워크넷(취업지원), 고용보험(실업급여, 고용장려금), 직업훈련 포털(내일배움카드), 취업이룸(국민취업지원제도) 등 분절적으로 운영하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신청·신고·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(AI),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 디지털 고용 플랫폼이다.

앞으로는 구직자, 구인기업 모두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각종 온라인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「고용24」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구인구직(24종), 실업급여(14종), 직업훈련(11종) 등 100여 종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
특히 청년 구직자는 ‘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’, ‘청년도전지원사업’ 등 각종 청년일자리 사업을 「고용24」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,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「고용24」에 탑재된 인공지능 기반 잡케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재학생에게 전공·적성에 맞는 진로탐색·설계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.

한편 이 장관은 「고용24」 시연 이후, 최근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한 고용정보원의 역할과 디지털·데이터 서비스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

시간을 가졌다.

이 자리에서 고용정보원은 올해 하반기 「고용24」 정식 오픈 전까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「고용24」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, 국민의 디지털 수요를 반영해 구인, 구직 등 국민 체감 효과가 높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세계 일류 서비스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.

아울러 고용정보원이 보유한 각종 고용행정데이터를 활용해 ①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대한 심층분석, ②각종 고용정책·사업에 대한 평가, ③디지털 서비스 개선 등 정책 혁신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했다.

이정식 장관은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「고용24」 구축에 힘쓴 직원들을 격려하면서, “고용정보원의 강점인 디지털, 데이터, 연구기능의 융합과 협업을 통해서 기존의 일자리정책 혁신을 뒷받침하고 국민 체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줄 것”을 당부했다.

고용정보원 김영중 원장은 “전 세계적으로 개인별·기업별 맞춤형 서비스가 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인공지능, 빅데이터 등 신기술 도입을 확대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고용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붙임. 고용24 설명자료

담당 부서	고용지원정책관 고용서비스기반과	책임자	과 장	이태훈 (044-202-7671)
		담당자	사무관	류영선 (044-202-7683)
<공동>	고용지원정책관 고용24 구축 추진단	책임자	팀 장	정홍석 (02-2250-5470)
		담당자	사무관	조경옥 (02-2250-5472)
<공동>	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총괄팀	책임자	실 장	임창경 (043-870-8670)
		담당자	팀 장	김용희 (043-870-8530)



**1 추진배경**

- 그간 취업알선(워크넷), 직업훈련(HRD-Net), 실업급여·고용장려금(고용보험) 등 다양한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운영
  - 이로 인해 고용서비스를 받으려면 여러 사이트를 오가야 하고, 종이 서식을 그대로 옮긴 복잡하고 어려운 이용법으로 불편 호소

**구직자**

- 구직등록, 실업급여, 내일배움카드는 모두 구직활동에 필요한데, 매번 로그인해서 다른 시스템에 들어가야 하니 불편해요.
- 이직일, 상실일, 구직급여일액 등등 말이 너무 어려워서 고용센터를 찾아갔는데, 기껏 찾아갔더니 저는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. 제가 지원대상인지 아닌지 미리 확인할 수는 없나요?

**회사 대표**

-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 정부 지원금을 추천해줄 수는 없나요? 지원금이 너무 많고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서 받습니까.
- 요건이 되는지 일일이 알아보고 서류준비하기가 힘듭니다. 받을 수 있는 지원금만 보여주고, 신청도 쉽게 해줄 순 없나요?

- 반면, 프랑스·독일 등은 단순 고용정보를 넘어서 빅데이터·AI를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·훈련 등 디지털고용서비스로 전환 추세
  - \* 프랑스 고용센터인 Pôle Emploi는 2012년부터 디지털 전환을 위해 대대적 투자 시작, 2018년부터 3년간 4억 5500만 유로(한화 약 5,410억원)를 투입
  - 이에 따라, 워크넷 등 정보망을 통합하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디지털 고용플랫폼 「고용24」 구축 추진

**2 주요 기능**

“고용24로 한번에, 맞춤형으로 쉽고 편리한 고용서비스”

**1 온라인 민원서비스 통합**

- 9개로 분산된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·신고·조회할 수 있게 하여 민원인의 접근성 제고
  - \* ①워크넷, ②고용보험, ③HRD-NET, ④취업이룸(국채), ⑤EPS(외국인고용), ⑥청년일자리, ⑦청년내일채움공제, ⑧중소기업청년직무체험, ⑨청년도전지원
- 정보 연계를 통해 각종 증빙서류와 입력항목을 축소하여 이미 보유한 정보는 요구하거나 증빙이 필요없도록 개선
  - 예) 고용촉진장려금은 102개→25개로 입력항목을 축소해, 시범서비스(22.7) 결과 온라인 신청비율이 345%증가(전년동기 3개월 대비)

**2 맞춤형 추천 서비스 강화**

- 개인·기업의 특성에 따라 수혜 가능성이 높은 지원금 안내, 구직자 역량에 맞는 일자리·훈련·자격 추천
- 기업이 고용24 방문 없이 자체 업무시스템(ERP)에서 편리하게 기업지원금을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민간 ERP와 연계

### ③ 자동심사·로봇자동화(RPA) 등 신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업무처리

- 직원 업무 중 각종 지원금 심사, 우편발송·지급처리 등 단순·반복 업무를 자동화하여 업무효율 향상 및 추가 상담시간 확보

#### < 고용24 주요 특징 및 기능 >

대상	주요 기능·특징	세부 내용
개인·기업	사이트 통합	한번의 로그인으로 고용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 *(개인) 취업지원+정부지원금+내일배움카드+실업급여 등 *(기업) 인재찾기+정부지원금+교육훈련+외국인고용 등
	맞춤형 추천	따로찾지 않아도 회원정보를 통한 맞춤형 정보제공 *(잡케어) 희망직종 기준 직무능력진단, 일자리·교육·자격증 추천 *(서비스 추천) 개인·기업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와 지원금 추천 *(노동시장정보) 직종별 실제임금, 기업/근로자 희망임금격차 등
	정보연계를 통한 신청절차 간소화	입력항목 축소, 신청 전 지원자격 사전진단, 정보연계를 통한 서류부담 감소를 통해 쉬운 신청 제공
	정책가이드	개인(취업단계별), 기업(인사관리단계별)에 맞는 각종 지원제도를 알기쉽게 소개
기업	민간 ERP 연계	기업 ERP(더존비즈온 등)에서 기업지원금 등 정보 검색 및 바로 신청 가능
내부직원	지원금 자동심사	별도 서류확인 없이 시스템이 적합여부 자동판정
	단순업무 자동화	일일이 수기로 발송하던 우편을 온라인으로 자동발송 하고, 전자팩스 수신 시 문서(신청서, 첨부) 자동 연계
	펌뱅킹	일반회계 지급처리 업무 간소화
	상담자동기록	STT(Speech To Text)를 활용, 상담내용 요약기록

### ③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

- (경과) '22.9월부터 구축을 시작, 현재 오픈 시 장애 등 혼란 최소화를 위해 업무 분야별로 나누어 단계적 오픈(~'24.3) 및 안정화 중
  - 워크넷·HRD-Net 등 기존 정보망도 당분간 병행운영 예정
- (향후 일정) 시범운영 및 병행운영 기간을 통해 사용자의 개선의견을 반영하고, 하반기 중 고용24로 완전 통합
  - \* 구체적인 일자리는 고용24 이용 비율, 만족도 및 안정화 여부 등을 종합해 확정